

데살로니가전서 3:2의 본문비평적 연구

이응봉*

1. 들어가는 말

철저한 본문비평적 작업을 통해서 나온 그리스 성경인 네슬-알란트 27판 (NA²⁷)과 알란트 편집의 GNT 4판은¹⁾ 데살로니가전서 3:2의 본문을 오래된 사본과 많은 지역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본문인 διάκονος τοῦ θεοῦ를 취하지 않고, 반면 약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본문인 συνεργὸν τοῦ θεοῦ를 취한다.²⁾ 이 영향은 절대적이어서,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본문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 논고의 목적은 이러한 수용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에 있으며, 특별히 본문비평적인 재고찰을 통해서 다른 본문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제안에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3:2에 대한 본문비평적 작업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들을 제시할 것이다.

2. 데살로니가전서 3:2에 대한 본문비평적 고찰

* 서울신학대학교 시간강사, 신약학.

- 1) E. Nestle and B. Aland, (Hg.), *Novum Testamentum Graec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²⁷); B. Aland, ed.,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United Bibel Societies, 1993⁴).
- 2) M. Dibelius, *An die Thessalonicher I.II, An die Philipper*, HNT 11 (Tübingen: Verlag von J. C. B. Mohr, 1937), 16; M. R. 메츠거, 『사본학 : 신약본문비평학』, 강유중 역 (서울: 평화사, 1979), 299; E. Best, *A Commentary on the First and Second to the Thessalonians*, BNTC (London, 1972), 132f; W.-H. Ollrog, *Paulus und seine Mitarbeiter*, WMANT 5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9), 73; E. Lohse, *Die Entstehung des Neuen Testament*, ThW 2 (Stuttgart u.a.: Verlag W. Kohlhammer 1983⁴), 153; J. E. Fram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St. Paul to the Thessalonians*, ICC (Edinburgh: T. & T. Clark 1975), 127f.; C. A. Wanamaker, *The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Michigan: W. B. Eerdmans, 1990), 128; E. J. Richard, *First and Second Thessalonians*, SacPag. vol. 11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5), 140f.; N. Walter, E. Reinmuth and P. Lampe, *Die Briefe an die Philipper, Thessalonicher und an Philemon*, NTD 8/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8), 133; A. J. Malherbe,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vol. 32B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191.

데살로니가전서 3:2에 대한 사본들의 상이한 제시는 여덟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 중에 대략 다섯 가지의 유형들을 통해서 종합될 수 있는데, 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동역자”(συνεργὸν τοῦ θεοῦ): D* 33 b it^{d,e,mon}* Ambst
2. “동역자”(συνεργόν): B 1962
3. “하나님의 봉사자”(διάκονον τοῦ θεοῦ): **Ⲛ** A P Ψ 0278 6 81 629 1241 1739 1881 *pc* vg syr^h cop^{sa,bo,fay} goth eth Basil Pelagius Theodorelat Euthalius
4. “봉사자와 하나님의 동역자”(διάκονον καὶ συνεργὸν τοῦ θεοῦ): F G it^{fg}
5. “하나님의 봉사자와 우리들의 동역자”(διάκονον τοῦ θεοῦ καὶ συνεργὸν ἡμῶν): D^c K 88 104 181 326 330 436 451 614 629^{mg} 630 1877 1984 1985 2127 2492 2495 Byz Lect syr^{p,h}with* Chrysostom John-Damascus

다섯 번의 경우 폭넓게 증언되고 있다. 대문자 사본들인 코텍스 클라로몬타누스(Claromontanus)의 후대 수정본과 코텍스 모스크벤시스(Mosquensis)이 διάκονον τοῦ θεοῦ καὶ συνεργὸν ἡμῶν의 본문을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소문자 사본들이 증언하고, 또한 몇몇 번역본들과 교부들도 증언한다. 이러한 폭넓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5번의 증언은 1번과 3번의 결합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³⁾ 또한 4번도 5번과 비슷하게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봉사자”에 소유격(τοῦ θεοῦ)이 빠지고, 두 번째 칭호인 “하나님의 동역자”는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 더욱 익숙한 표현은 5번처럼 소유격들이 각각 바뀌어져 있었다면 더욱 적합하였을 것이다. 이미 그러한 점을 2번에서 소유격 없이 “동역자”의 본문을 증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1,2,3번 중에서 원문에 가까운 것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문비평⁴⁾의 외적 판단에 의하여 오래된 사본들과 여러 지역들에서 증언하고 있는 3번이 가장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1번과 2번은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빈약함을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다. 내적 판단의 척도들 중 하나인 “짧은 본문이 가능성이 높다”(lectio brevior potior)에 따르면 대문자 사본인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과 소문자 사본인 1962이 가장 짧은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원본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바이쓰(B. Weiß)는 가장 간단한 해결 방식으로 바티칸 사본이 원본에 가까운 본문이라고 주장한다.⁵⁾ 그러나 내적 판단의 척도들 중 또 다른 하나인 “어려운 본문이 가능성이 높

3) M. Dibelius, *An die Thessalonicher I,II*, 16; M. R. 메츠거, 『사본학』, 299.

4) 본문비평의 기준들에 대해서 M. R. 메츠거, 『사본학』, 259-262를 보라.

5) B. Weiß, “Textkritik der paulinischen Briefe”, *TU* 14:3 (1896), 13f.

다”(lectio difficilior probabilior)를 적용해 볼 때, 바이쓰의 주장은 수용될 수 없다. 만약 B가 원문이라면, 어떻게 사본들이 “하나님의 봉사자”(διάκονον τοῦ θεοῦ)로 수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합하게 설명하지 못한다.⁶⁾ 이미 바울 자신이 디모데를 특별한 칭호로서 자신의 동역자라고 이해했다면, 후대에 왜 그를 더 넓고 보편적인 개념인 “봉사자”의 개념으로 수정했어야 했는가?⁷⁾ 그가 너무 젊은 시기에 그리고 아직 젊은 나이에 바울의 동역자의 반열에 오른 것이 적절하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후대의 서기관이 수정하였는가?⁸⁾ 그러나 이러한 수정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데, 그 이유는 이미 바울 자신이 디모데를 그렇게 규정한 것에 대해 어떤 수정을 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⁹⁾ 또한 만약 2번이 원본이라면, 1번으로의 변경 곧 소유격(τοῦ θεοῦ)을 적합하게 설명하기 힘들다. 바울에게서 “동역자”의 개념은 거의 “협력적인”(synergistisch)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때 그의 협력자들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개념엔 거의 “나의” 혹은 “우리들”라는 소유격이 붙게 된다(빌 2:25, 4:3, 고후 1:24, 8:23, 롬 16:3.9.21; 비교. 고전 3:9). 이런 점에서 어떤 동역자는 바울과의 협력을 혹은 우리들과의 협력을 하는 자이다.¹⁰⁾ 그런 점에서 후대의 서기관이 소유격 “하나님의”를 첨가함으로써 디모데를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로 수정하고자 했다면, 이것은 한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내용적으로 적합하지 않게 보인다.¹¹⁾ 혹 서기관이 고린도전서 3:9에 나타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θεοῦ ἑσμεν συνεργοί)를 보고, 2번의 본문을 1번으로 수정했다면, 아마도 그는 고린도전서 3:9의 본문을 문맥적인 이해 없이 외관적인 관찰만을 통해서 수정을 하게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3:9에서 συν-은 소유격인 “하나님”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동사 자체에 이미 협력의 대상들이 포함되어 있다. 곧 아폴로는 바울의 동역자이다 혹은 바울은 아폴로의 동역자이다. 그래서 여기서 소유격(θεοῦ)은 기원적(auctoris)으로 이해해서 동역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이다”로 이해하든지¹²⁾ 혹은 목적적으로 이해해서 동역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이

6) 비교. M. R. 메츠거, 『사본학』, 299.

7) συνεργός와 διάκονος가 동일한 의미로 바울이 사용했다면(그렇게 W.-H. Ollrog, *Paulus und seine Mitarbeiter*, 73; 비슷하게 E. Lohse, *Die Entstehung des Neuen Testament*, 153), 먼저 왜 바울은 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다른 많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는가를 적절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두 번째, 만약 이 두 용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후대의 서기관들은 왜 굳이 다른 개념들로 변경하려고 시도하고 있는가? 만약 후대의 서기관들이 바울의 이런 개념들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했다면, 굳이 수정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8) M. R. 메츠거, 『사본학』, 300.

9) 원문에 나타난 후대의 서기관들의 수정 작업에 관하여 M. R. 메츠거, 『사본학』, 259f.를 보라.

10) W.-H. Ollrog, *Paulus und seine Mitarbeiter*, 68-72.

11) 비교. E. Lohse, *Die Entstehung des Neuen Testament*, 153; 비슷하게 N. Walter, E. Reinmuth and P. Lampe, *Die Briefe an die Philipper, Thessalonicher und an Philemon*, 133.

해할 수 있다.¹³⁾ 이런 점에서 2번에서 1번으로 수정한 것보다 오히려 반대로 1번에서 2번으로 수정이 더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1번의 본문(συνεργὸν τοῦ θεοῦ)을 내용적으로 가장 어려운 본문이어서, 이를 통해서 다른 변형들이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⁴⁾ 로제(E. Lohse)는 “인간 디모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표현이 매우 거슬리는 표현이라고 주장한다.¹⁵⁾ 후대의 서기관들은 이런 거슬리는 표현을 한편으로 2번처럼 소유격(τοῦ θεοῦ)를 제거함으로, 다른 한편으로 3번처럼 바울에게 전형적인 표현인(롬 13:4; 고후 5:4) “하나님의 봉사자”(διάκονον τοῦ θεοῦ)를 문제없이 수정하였을 것이다.¹⁶⁾ 이와 관련해서 리차드(E. J. Richard)는 1번이 원문일 가능성을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한다.¹⁷⁾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3:9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와 강한 병행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방식으로 바울이 다른 곳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인간 중재자들 혹은 돕는 자들(살전 2:13; 1:5; 또한 고후 5:20-6:2; 롬 10:14-17)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진술한다.”¹⁸⁾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도 결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¹⁹⁾ 또한 반대 의견들에 대한 설명들을 필요로 한다. 만약 서기관이 본래의 본문 συνεργὸν τοῦ θεοῦ가 매우 담대하고, 내용적으로 방해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2번의 본문 곧 τοῦ θεοῦ를 빼고 συνεργόν만 남겨 놓았다면,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일어나게 된다: 왜 서기관은 완전한 문장으로 완결하지 않고, 불완전한 문장으로 남겨 놓았는가? 왜 서기관은 좀 더 완전한 문장으로서 συνεργόν 뒤에 소유격 ἡμῶν을 붙이지 않았는가?²⁰⁾ 우리는 5번의 본문에서

12) W.-H. Ollrog, *Paulus und seine Mitarbeiter*, 68; 다르게 E. E. Ellis, “Paul and his Co-Workers”, *NT 17* (1971), 440. 여기서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3:2의 소유격을 “하나님과 협력하는 동역자”로 번역한다.

13) 비교. E. Best, *A Commentary on the First and Second to the Thessalonians*, 132f.

14) E. Lohse, *Die Entstehung des Neuen Testament*, 147.153; M. R. 메츠거, 『사본학』, 299f.; J. E. Fram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St. Paul to the Thessalonians*, 127f.; C. A. Wanamaker, *The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128; E. J. Richard, 위의 책, 140f.; A. J. Malherbe,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191.

15) E. Lohse, *Die Entstehung des Neuen Testament*, 153; 비슷하게 J. E. Fram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St. Paul to the Thessalonians*, 127. 그는 이러한 바울의 표현을 “담대한”(bold) 표현이라고 했다. 또한 그렇게 C. A. Wanamaker, *The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128; E. J. Richard, *First and Second Thessalonians*, 140.

16) E. Lohse, *Die Entstehung des Neuen Testament*, 153; 비슷하게 M. R. 메츠거, 『사본학』, 300; W.-H. Ollrog, *Paulus und seine Mitarbeiter*, 68, note 31.

17) E. J. Richard, *First and Second Thessalonians*, 150.

18) *Ibid.*, 150.

19) L. Morris,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NICNT (Michigan: W. B. Eerdmans, 1991), 94, note 5.

20) 만약 서기관이 1번에서 2번으로 수정하였다면, 서기관은 실제로 불완전한 상태로 남겨둔 것이

서기관이 수행한 좀 더 완벽한 바울적인 표현을 볼 수 있다: *διάκονον τοῦ θεοῦ καὶ συνεργὸν ἡμῶν*. 만약 1번이 원본이라면, 4번의 혼합 형태에 대한 설명이 매우 어렵게 된다. 4번의 표현 *διάκονον καὶ συνεργὸν τοῦ θεοῦ*은 어떤 증언들을 혼합한 것인가? 만약 단순히 1번과 3번을 결합하였다면, *διάκονον* 다음에 소유격 *τοῦ θεοῦ*를 탈락시킨 것은 이해가 되지만 - 왜냐하면 바울은 이 개념을 신의 소유격 없이 사용하는 것이 더 흔하기 때문이다(롬 15:8.31, 16:1; 갈 2:17; 빌 1:2; 반면 롬 13:4: *θεοῦ διάκονος*) -, 그러나 문제의 부분인 *συνεργὸν τοῦ θεοῦ*를 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만약 1번이 원본이었다면, 서기관은 4번의 사본들을 앞의 부분을 그렇게 수정하였듯이(*διάκονον τοῦ θεοῦ* → *διάκονον*) 또한 뒷 부분도 적합하게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συνεργὸν τοῦ θεοῦ* → *συνεργόν*²¹⁾ 혹은 /→ *συνεργὸν ἡμῶν*. 우리는 서기관의 작업 중에 가장 완벽하게 바울적으로 결합시킨 문장을 5번에서 찾을 수 있다. 5번의 경우에 서기관이 1번과 3번을 결합시키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3번은 그대로 수용하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번을 *τοῦ θεοῦ*에서 *ἡμῶν*로 변형시킨다.

만약 1번이 원본이었다면, 서기관이 왜 3번으로 변경했는가를 적절하게 설명해야만 한다. 만약 서기관이 *συνεργὸν τοῦ θεοῦ*에서 내용적인 문제점을 발견해서, 의미적으로 문제없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διάκονον τοῦ θεοῦ*로 수정하였다면, 그렇다면 이 주장은 적합한 것인가?²²⁾ 이러한 주장은 강요적이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두 개념 *συνεργός*와 *διάκονος*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²³⁾ 바울에게 있어 *διάκονος*-개념은 *συνεργός*-개념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곧 바울에게 있어 후자의 개념은 훨씬 협소한 의미를 가져서, 바울과 동일한(*συν-*) 입장에서 이해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한정할 때에 사용되는 반면에, 전자의 개념은 훨씬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부여된 모든 일들, 곧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²⁴⁾ 그런 점

된다. 곧 *Τιμόθεον ... καὶ συνεργὸν ἐν τῷ εὐαγγελίῳ τοῦ Χριστοῦ...*이 된다. 여기서 디모데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누구와 동역자가 되는가? 바울에게 있어 “동역자”의 개념은 일을 같이 하는 대상으로서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같이 일하는 대상이 불분명하게 된다.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을 남겨둔다는 것은 서기관이 불완전한 수정을 가했거나 혹은 1번을 원본으로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 21) 만약 1번이 원본이었다면, 서기관이 2번과 같이 변형시켰다면, 또한 결합형 속에서도 어떤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22) E. Lohse, *Die Entstehung des Neuen Testament*, 153; W.-H. Ollrog, *Paulus und seine Mitarbeiter*, 68, note 31.
- 23) 다르게 W.-H. Ollrog, *Paulus und seine Mitarbeiter*, 73.
- 24) *διάκονος*-개념의 광의적인 의미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5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하나님으

에서 전자의 개념은 후자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²⁵⁾ 그렇기 때문에 후자의 개념이 전자의 개념으로 수정되는 것은 비슷한 내용의 상호적인 교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구체적인 개념이며, 더 한정적인 그룹에 대한 개념에서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서기관의 작업에 대한 의문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서기관은 더 좁고, 더 한정된 그룹을 규정짓는 개념에서, 더 폭넓고, 일반적이며,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그룹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수정할 수 있는가? 왜 서기관은 바울이 이미 자신의 동역자의 그룹에 포함시킴으로서 더욱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했던 사람을 더 보편적인 그룹들을 의미하고, 또 의미적으로 더 낮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으로 격하시킬 수 있는가?²⁶⁾ 이러한 행위는 서기관의 행위에 적절하지 않는 행위로 이해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1번에서 3번에로의 변형은 적절하지 않으며, 결정적이지 않다.²⁷⁾

3번의 본문을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²⁸⁾ 그러나 필자의 경우에 3번의 본문이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서 다른 변형들의 발생의 이유들을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3번에서 5번의 경우가 파생하였다는 것은 쉽게 파악된다. 그러나 4번의 경우에 소유격(*διάκονον τοῦ θεοῦ*)이 삭제되는데, 바울에게 있어 신의 소유격 없이 이 개념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등장하는 비슷한 표현은 비그리스도인에 대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롬 13:4), 그리스도인인 디모데와 구별하기 위해서 소유격을 제거했을 것이다. 서기관은 디모데의 위치를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시대에 약간 낮은 그런 교회의 직분으로 생각된 *διάκονος*를 보았을 때, 디모데의 위치와 현재의 그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적절치 못함을 발견했을 것이다(비교. 딤후전 3:9). 그래서 더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그룹에 속한 개념인 *συνεργὸν τοῦ θεοῦ*로 전환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비록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개념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미 그 근거를 고린도전서 3:9에서 혹은 고린도후서 1:24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기관은 이 두 본문이 엄격하게 내용적으로 *συνεργὸν τοῦ θεοῦ*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 두 본문은 그 비교 대상이 이미 인간들 간에 협력하는 관계들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 변형된 본문은 디모데 자신

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들의 다양성을 말할 때, 그 다양성들은 *διάκονιας*의 다양성이 된다. 두 개념 *συνεργός*와 *διάκονος*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3.1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25) 반대로 L. Morris,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94f.

26) 그렇게 Ibid., 95.

27) Ibid., 94, note 5.

28) 예외적으로 Ibid., 94f.

이 하나님과 협력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한 서기관은 이러한 주의 깊지 못한 변형을 또 다른 서기관은 매우 주의 깊게 변형시키는데, 곧 1번의 표현을 2번으로 변형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 깊은 변형도 아직 미완성으로 남겨 놓게 된다. 아마도 뒤에 소유격(ἡμῶν)을 첨가하였다더라면 더욱 완전한 변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모든 내용적으로 불완전한 형태들의 발생은 매우 어려운 본문인 3번으로부터 파생될 가능성이 높다.

3. 신학적인 접근들

여기서 신학적인 접근들을 통해서 *συνεργὸν τοῦ θεοῦ*보다 *διάκονον τοῦ θεοῦ*의 본문이 더 타당함이 제시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개념들 *συνεργός*와 *διάκονος*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런 작업이 수행될 것이다.

3.1. *συνεργός*와 *διάκονος*

바울에게 있어 이 두 개념에 상호적인 관계이며,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적합하지 않다.²⁹⁾ 바울은 *διάκονος*의 개념을 훨씬 광범위한 이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반면, *συνεργός*의 개념은 훨씬 협소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개념 *διάκονος*을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한다.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을 표현할 때 이 개념을 사용한다(롬 15:8). 예수의 지상적인 삶은 유대인들(할레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 보내심과 관련되며, 이 지상 삶 동안 그들을 위한 *διάκονος*였다. 여기서 이 개념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모든 행위들과 말씀 선포를 포함한다. 바울 자신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다. 바울도 자신의 이방인에 대한 일을 *διάκονος*로 이해한다. 곧 이방인을 위한 복음 선포의 일을 *διάκονος*로 표현하며, 이런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신앙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롬 11:13; 고전 3:5). 바울은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기쁨이 되는 일로서 구제 헌금을 그 곳에 가져 가는 일을 *διάκονος*로 이해한다(롬 15:25.31; 고후 8:19f). 빌레몬 13에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에게 한 행위들도 *διάκονος*로 묘사한다. 아마도 이 때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시중을 들며, 그를 위해 봉사의 일을 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 개념은 교회

29) W.-H. Ollrog, *Paulus und seine Mitarbeiter*, 73.

의 직분과 관련된 인상을 준다. 로마서 16:1에서 바울은 뵈뵈를 겐그레아 교회의 *διάκονος*라고 명명한다. 비슷하게 빌립보서 1:2에서 교회의 직분자들로 보이는 *ἐπισκόποις καὶ διακόνοις*에 대해서 말한다. 바울의 시기에 교회의 직책들이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개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로 이해되거나 혹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의 *διάκονος*인 뵈뵈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 교회에 그를 추천하고 있는데, 그의 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으로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³⁰⁾ 이 개념에 대한 은사적인 측면의 사용도 이러한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바울은 이 개념을 개별적인 은사로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롬 12:7), 더욱 확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들을 지칭할 때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διαίρέσεις διακονιῶν*: 고전 12:5). 더욱 나아가서 바울은 이 개념을 비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 있다. 곧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의 통치자를 *θεοῦ διάκονός*로 표현한다(롬 13:4). 결론적으로 바울에게 있어 이 개념은 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이해된다. 곧 사람들이나 또는 사람들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것들이 그에 의해서 사용될 때,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διάκονος*이다. 비록 그러한 행위들이 사람들과 관련될 때도, 역시 그 행위들은 또한 하나님의 *διάκονος*로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 이 개념은 바울에게 있어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이 개념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은사들로부터, 아마도 교회에서 특별한 임무로서 맡겨진 자에게 혹은 구제를 위한 어떤 행위들에도 또한 바울과 동료들의 복음전파에도 심지어 유대인을 위한 예수의 사역까지 또한 신앙적인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또한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의 이용 가능한 모든 것들에까지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개념 *συεργός*은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개념에서 접두사 *συ-*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εργός*와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동등의 대상인 소유격(*μου* 혹은 *ἡμῶ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접두사는 바울과 “같은 일”을 전적으로 의미하지 않고, 또한 “같은” 장소에서 바울과 일을 하는 것을 전적으로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바울과 혹은 “우리들”로 이해된 사람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일” - 여기서 가능하다면 접두사는 같은 하나님의 일을 의미할 수 있다 - 을 하는 사람들로 이해된다. 이들은 바울과 상관 없이 독립적으로 비록 바울과 다른 일을 할지라도 같은 하나님의 일을

30) 그렇게 Lee Eung-Bong, “Das Verständnis der Funktion des Präskripts im Römerbrief”, Th.D. Dissertation (Kirchliche Hochschule Bethel/Bielefeld, 2007), 55f.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이다. 바울은 다음의 사람들을 동역자의 반열에 포함한다: 아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에바브로디도, 디도 그리고 빌레몬. 아볼로는 비록 바울과 다른 일을 하였을 지라도 동일하게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 그는 고린도교회에서 선포의 일을 하였고, 그곳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전 3:4-9).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마찬가지로(롬 16:3-7). 비록 바울과 같은 장소에 있지 않고, 또한 바울과 다른 일들을 할지라도, 이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들 또한 로마의 가정교회에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빌레몬은 아마도 콜로새에 있는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였을 것이다. 그가 바울과 언제, 어디서 만남을 가졌는지 알 수 없으나, 그는 그곳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몬 1:2). 에바브로디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 전에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빌 2:25-30). 디도 역시 바울과 함께 한 자로서 구제 헌금을 위해서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자임이 틀림없다(고후 8:16-24).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실루아노가 등장한다. 그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과 협력하여 복음전파를 한 자이다. 이러한 부류에 또한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들 수 있다. 디모데 역시 처음에 많은 훈련자 혹은 조수로 복음 전도 사역에 참여하였고,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그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바울의 동역자의 반열에 포함되었을 것이다(롬 16:21). 그런 점에서 “동역자” 개념은 바울에게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바울과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같은 곳에서든 혹은 다른 곳에서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접두사 *συμ-*은 바울과 동등한 자격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 대부분은 바울처럼 교회의 설립자라든지 혹은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책임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다.

3.2. 디모데

바울의 가장 먼저 쓴 편지인 데살로니가전서에 바울의 동행자로 디모데가 등장한다(살전 1:1). 바울은 디모데를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사도행전의 보고에 의하면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행 16:1).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었고, 또한 그 지역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였다. 이러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칭찬은 아마도 바울과 실라에게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여행에 동행자로 택한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³¹⁾ 디모데는 이 때 바울과 실라의 여행 동행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조수” 혹은 “조력자”(μαθητής)³²⁾로 참여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조력자로 전도여행에 참여한 것과 같은 것이다(행 13:5). 사도행전에서 마가는 복음전도여행의 조력자로서 훈련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이 사역(τὸ ἔργον)³³⁾에 적합한 자로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행 15:38).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마가와 동행하기를 원치 않고, 새로운 동행자로 실라를 택하였다(비교. 행 15:36-41). 실라는 이미 바울에게 있어 이미 훈련이 잘 된 복음전파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누가는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의 단계에서 곧 빌립보에서 복음전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실라가 얼마나 잘 훈련된 자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행 16:16-40).

누가에 의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여행에 참여할 때, 복음전파의 훈련생으로 동참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누가의 기술의 습관에서 증명될 수 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동행하지만, 복음전파의 행위를 기록할 때, 조력자인 마가는 언급하지 않는다(비교. 행 13:6-12). 누가의 이러한 기록은 또한 디모데에게도 적용된다. 누가는 조력자로 함께 참여한 디모데를 바울과 실라가 복음전파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기술 하는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는다(행 16:16-17:15). 그런 점에서 디모데는 처음에 마가처럼 전도여행에 조력자로서 참가하였을 것이다. 곧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인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수행하는 일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31) 단어 μαθητής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혹은 신도들과 동의어로 이해된다(행 6:1.7; 9:1.10.19.26). 이 개념은 사도들의 개념과 구별되며, 또한 제자들 중에서 뽑힌 일곱 집사वाद도 구별된다. 사도행전 16:2의 표현은 16:3에 바울이 디모데를 동행하게 한 근거가 된다.

32) 단어 ὑπηρέτης는 독립적으로 일을 행하는 동행자라기보다는 돕는 조력자로 이해된다. 그렇게 J. Roloff, *Die Apostelgeschichte*, NTD 5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8), 198.

33) 바울이 실라를 택한 이유는 아마도 마가보다는 실라가 훨씬 복음전도를 위해 잘 훈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바울은 마가에게서 아직 잘 훈련되지 않고 또한 훈련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여행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엔 잘 훈련이 잘 되고, 아마도 검증된 자로서 실라를 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바울이 실라를 택한 이유를 안디옥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하기도 한다. 유대인그리스도인으로서 실라는 안디옥 사건 때,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편에 섰지만, 적어도 실라는 바울의 편에 서서, 율법에서 자유로운 복음전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을 것이다. 그렇게 W.-H. Ollrog, *Paulus und seine Mitarbeiter*, 18.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희박하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2f에서 베드로와 남은 유대인들 모두가 외식하였고, 나머지 한 사람인 바나바까지도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점은 베드로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오직 바나바 한 사람인데, 이도 역시 흔들렸다고 말한다.

누가는 바울의 편지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데살로니가전서가 쓰여졌다면, 아마도 고린도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만난다(행 18:5). 누가와 달리,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미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아덴까지 동행하였고, 거기서 오직 디모데만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된다(살전 3:1f). 흥미로운 점은 데살로니가전서 3:1에 “우리들”의 표현은 명백하게 디모데와 구별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아덴에 남아 있는 “우리들”은 곧 바울과 실루아노는 그들의 형제이며 또한 하나님의 “봉사자”(διάκονος)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급파하였다. 바울의 진술 곧 디모데만 데살로니가로 급파한 사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높은데,³⁴⁾ 데살로니가에 바울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졌고, 그곳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³⁵⁾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바울 자신이나 실루아노는 그곳에 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수와 조력자 역할을 하고, 또한 직접 독립적으로 복음 전파의 일을 하지 않은 디모데만 보낼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아직 디모데는 공개적으로 이들에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험이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다(비교. 행 17:1-15).³⁶⁾

또한 데살로니가전서가 쓰여질 당시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의심할 수 있다. 바울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그는 복음전도를 위해서 바울과 실루아노를 도우며, 또한 배우는 입장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고린도전서에도 발견된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바울은 미리 디모데를 보내게 된다(고전 4:17; 16:10).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동역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도 디모데를 바울의 동역자로 이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 그는 독립적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10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너희들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

34) 사도행전 17:15와 18:5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바울이 먼저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머문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곧 데살로니가에서 직접 온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바울이 다시 이 두 사람을 데살로니가에 보내지 않았던지, 아니면 아덴에 바울이 머물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아덴으로 왔고, 여기서 다시 이 두 사람을 데살로니가에 보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은 다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다. 만약 이러한 것이 옳다면,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두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진술은 바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35) 데살로니가전서 2:18에서 바울은 사단의 방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사단의 방해는 데살로니가전서 2:14-17에 언급된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이해할 수 있다. 곧 유대인들의 위협이 바울과 일행으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36) 비교. Lee Eung-Bong, “Das Verständnis der Funktion des Präskripts im Römerbrief”, 90f.

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라고 고린도교인들에게 권면한다. 이러한 권면은 만약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였다면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점은 디모데가 아직 바울 밑에서 훈련하고 있는 훈련생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런 권면의 말을 수신인들에게 하고 있을 것이다.³⁷⁾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디모데는 바울의 조력자 혹은 훈련자의 과정을 갖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내용 전달자 혹은 편지의 전달자 혹은 편지의 대필자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³⁸⁾ 그 후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되는 빌립보서에서³⁹⁾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선 “동역자”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디모데에 대해선 아직 이 명칭을 언급하지 않는다. 비록 이 때에 디모데가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잘 수행하는 바울의 수제자 역할을 하고 있을지라도 아직 그에게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이 확실하게 디모데에게 자신의 동역자로 생각할 수 있는 시기는 아마도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일 것이다. 로마서 16:21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이해한다. 만약 그 이전에 쓰여진 고린도후서 1:24의 표현 “우리들은 너희들의 기쁨의 동역자들이다”(συνεργοί ἐσμεν τῆς χαρᾶς ὑμῶν)에서 “우리들”속에 디모데가 포함된다면, 이미 고린도후서가 쓰여지고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이해하고 있다. 이 시점은 과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시점(고후 1:19)과 다른 현재의 시점을 의미한다. 곧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 시점은 대략 기원후 55-56년 경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만약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기원후 49-50년에 시작했다면, 디모데를 대략 비슷한 시점에 만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약 5년 정도를 훈련자로서 조력자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가 충분히 독립적으로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해서 그의 동역자로 언급한다(고린도후서, 로마서).

요약적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 곧 데살로니가전서가 쓰여진 시점에,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말했다는 점은 시기상조인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봉사자”(δίακονος)의 개념을 디모데에게 사용하였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훈련과정이 끝났을 때, 적어도 고린도후서가 쓰여질 시기에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역할을 하였고, 독립적이며, 자발적으로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것이다.

37) 비슷하게 W. Hadorn, “Die Gefährten und Mitarbeiter des Paulus”, *Aus Schrift und Geschichte. Theologische Abhandlungen*, FS A. Schlatter zu seinem 70. Geburtstag (Stuttgart, 1922), 75; 다르게 W.-H. Ollrog, *Paulus und seine Mitarbeiter*, 22f.

38) 비교. Lee Eung-Bong, “Das Verständnis der Funktion des Präskripts im Römerbrief”, 87-92.

39) 비교. W.-H. Ollrog, *Paulus und seine Mitarbeiter*, 244f.

4. 결론

데살로니가전서 3:2에 대한 본문비평적인 작업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은 학자들로부터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읽음 *συνεργὸν τοῦ θεοῦ* 대신에 외적 그리고 내적인 근거들을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 읽음 *διάκονον τοῦ θεοῦ*이 적극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문 “하나님의 봉사자”는 외적으로 많은 사본들의 증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변형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본문임이 틀림없다. 또한 내적인 증거로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당시 디모데는 바울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독립적이며, 지도력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 그는 아직 바울의 “동역자”라기보다는 바울의 “동행자” 혹은 “조력자”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이며, 그 시기는 아마도 고린도후서가 쓰여질 때이거나 혹은 로마서가 쓰여질 때 비로소 그는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일에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

<주제어> (Keywords)

데살로니가전서 3:2, 본문비평, 디모데,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봉사자.

1 Thessalonians 3:2, Textual Criticism, Thimotheus, Co-Worker of God, Deakons of God.

(투고 일자: 2009.8.5, 심사 일자: 2009.9.14, 게재 확정 일자: 2009.9.14.)

< 참고문헌 > (References)

- 메츠거, M. R., 『사본학: 신약본문비평학』, 강유중 역, 서울: 평화사, 1979.
- Aland, B., (ed.),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United Bible Societies, 1993⁴.
- Best, E., *A Commentary on the First and Second to the Thessalonians*, BNTC, London, 1972.
- Dibelius, M., *An die Thessalonicher I.II, An die Philipper*, HNT 11, Tübingen: Verlag von J. C. B. Mohr, 1937.
- Ellis, E. E., “Paul and his Co-Workers”, *NT* 17 (1971), 423-468.
- Frame, J. 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St. Paul to the Thessalonians*, ICC, Edinburgh: T. & T. Clark, 1975.
- Hadorn, W., “Die Gefährten und Mitarbeiter des Paulus”, *Aus Schrift und Geschichte. Theologische Abhandlungen*, FS A. Schlatter zu seinem 70. Geburtstag, Stuttgart, 1922, 55-89.
- Lee, E.-B., “Das Verständnis der Funktion des Präskripts im Römerbrief”, Th.D. Dissertation, Kirchliche Hochschule Bethel/Bielefeld, 2007.
- Lohse, E., *Die Entstehung des Neuen Testament*, ThW 2, Stuttgart u.a.: Verlag W. Kohlhammer 1983⁴.
- Malherbe, A. J.,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vol. 32B,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Morris, L.,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NICNT, Michigan: W. B. Eerdmans, 1991.
- Nestle, E. and Aland, B., (Hg.), *Novum Testamentum Graec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²⁷.
- Ollrog, W.-H., *Paulus und seine Mitarbeiter*, WMANT 5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9.
- Richard, E. J., *First and Second Thessalonians*, SacPag. vol. 11,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5.
- Roloff, J., *Die Apostelgeschichte*, NTD 5,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8.
- Walter, N., Reinmuth, E. and Lampe, P., *Die Briefe an die Philipper, Thessalonicher und an Philemon*, NTD 8/2, Göttingen: Vandenhoeck and Ruprecht, 1998.

Wanamaker, C. A., *The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Michigan: W. B. Eerdmans, 1990.

B. Weiß, "Textkritik der paulinischen Briefe", *TU* 14:3 (1896), 1-29.

< Abstract >

A Text-critical Study on 1 Thessalonians 3:2

Dr. Eung-Bong Le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ext-critical study on 1 Thess 3:2, which has many different readings in manuscripts. The NA²⁷ and NTG⁴ take the reading of the younger and not widespread manuscripts συνεργὸν τοῦ θεοῦ, instead of the reading of the older and widespread manuscripts, διάκονον τοῦ θεοῦ. This has such a great influence on New Testament scholars that most of them, who are specialists in the First Letter of Paul to the Thessalonians, accept this reading for 1 Thess 3:2.

This study aims at proving that the antithesis is also acceptable, that means, that the reading of διάκονον τοῦ θεοῦ is closer to the original text than the reading of συνεργὸν τοῦ θεοῦ. In order to prove this, I will first carry out a text-critical analysis of 1 Thess 3:2, in which I will take the text of διάκονον τοῦ θεοῦ as the original text instead of that of συνεργὸν τοῦ θεοῦ and try to show that the formation of other variations can be explained more easily with the text of διάκονον τοῦ θεοῦ than with that of συνεργὸν τοῦ θεοῦ. Then it will be followed by a theological analysis of the terms of συνεργός and διάκονος, where I will show that the terms of διάκονος are broader than those of συνεργός in the pauline letters, so that it will be very logical that a scribe/s has/have changed from διάκονος to συνεργός. Lastly I will focus on the Person Timothy, especially from the chronological perspective. When the First Letter of Paul to the Thessalonians was written, he worked only as a helper, not a coworker, for he cannot have already become a co-worker of Paul during the very short time between his first encounter with Paul and Paul's writing of this letter.